

오륙도 칼럼



박기철

경성대 교수·광고홍보전문

얼마 전 서구에 있는 최민식 갤러리에서 있었다. 그 곳 직원들은 영화배우 최민식 갤러리가 생기는 줄 알았다. 알고보니 사진작가 최민식 갤러리라는 놀란다. 나도 최민식(崔敏植, 1928~2012)을 알면서 세 번 봤다.

첫번째 놀람은 그가 남긴 사진 작품을 접하고 나서다. 한 평생 가난한 사람을 찍었던 그의 사진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넘친다. 1955년에 그림공부를 하러 일본으로 간 20대 최민식은 1957년 어느 날 한 책방

에서 미국의 사진작가 에드워드 스타인켄의 사진집 '인간가족(The Family of Man)'을 보고 전율하며 인생의 방향을 잡았다. 그 후 죽을 때까지 55년 동안 다른 쪽으로 한눈을 팔지도 않고 하나의 콘셉트에 매달렸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따뜻한 인간애로 포착했다. 특히 자신의 작품이 배부른 자의 장식물이 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돈도 되지 않는 일을 그렇게 한 평생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는 대단한 거장이자 엄청난 대가다.

사진작가 이전 심오한 철학자

두번째는 그가 남긴 책들을 읽고 나서다. 황해도에서 월남한 선생은 변변한 학력이 없다. 사진을 독학으로 공부했다. 늘 책을 읽고 쓰며 공부하는 작가였다. 그는 사진만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보다 다방면으로 연구했다. 나는 그가 쓴 20여권의 책을 샀다. 읽으면 그가 사진작가라기보다

훌륭한 사상가이거나 심오한 철학자처럼 여겨진다. 우연히 TV에서 고인이 나온 방송을 접한 적이 있다. 사진작가는 늘 공부하며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예술처럼 살았다.

세번째는 그가 살던 집을 방문하고 나서



최민식 선생의 생전 모습

독자의 소리

부산남구신문편집실 ☎607-4065, 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나의 가치관을 바꿔놓은 봉사활동

2014년 9월 군대를 전역하고 스펙을 쌓을 만한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카타란 봉지를 들어야 했다. "이런 일은 다 여자가 하는 거야."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났다. 평소에도 남편은 집안을 잘 도와주지 않는 편이다. 가정적인 중국 남자와 달라 가끔 후회할 때도 있었다. 시어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 남편이 출근해 나가면 시어머니는 내가 심심할까봐 한국 화투를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늘 화투를 치며 논다.

이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내가 해주는 작은 봉사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다. 캄보디아에서 막을 아인 한 명이 나에게 다가와 속스럽게 말을 했다. "고맙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많은 생각이 빠지게 한 한마디였다. 그 말에 울컥해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다. 내가 이들에게 해준 봉사는 보잘 것 없는 것이었고 부족한 점도 많았다. 이후 남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직업으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사람을 만나는 게 좋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는 2015년 초부터 지금까지 매달 용호동의 홀로어르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동맹대 학생들 몇 명이조를 만들어 봉사사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집을 방문해 물품도 전달하고 말동무도 되어 드리는 일이다. 매달 찾아 가는 게 힘들지만 항상 웃는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 주는 어르신들을 보면

독자에세이

자신도 망치고 사회도 망치는 허위신고

작년 7월에 있었던 일이다. 이른 새벽시간, 노란 머리에 무스를 바른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한 외국인 청년이 부산 남부경찰서 대원지 구대를 방문했다. 검은색 우산, 검은색 안경까지 쓴 모습은 마치 '킹스맨'의 주인공 같았다. 그는 지구대로 걸어 들어와 차장 영국첩보원(MI6)이라며, 조금 전 술집에서 어떤 남자가 김해에서 베이징으로 향

하는 항공기를 폭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진술한다. 이에 지구대는 물론, 경찰서, 지인 방정, 경찰특공대 비상이 걸렸다. 경찰특공대는 무장을 하고 공방으로 출동했으며, 지구대 직원들, 의사과, 공방기동대 직원들은 한바탕 소동을 벌였고, 출발하려던 항공기는 기내 전체 수색을 마칠 때까지 운행이 지연되었다. 이는 허위신고 내

■ 임찬수의 '인생을 바꾸는 말말말' - 자기소개서의 기술

나만의 '스토리' 라는 양념을 넣어라

"안녕하세요. 저는 대연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입니다." 전국노래자랑에서 흔히 보는 자기소개다. 우리나라 자기소개서의 현주소다. 막상 자기를 소개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국화의 원 선거에서도 후보들이 공천면접에서 자기소개에 가장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한다. 이렇게 막상 하려고 하면 말하기 힘든 자기소개를 어떤 모임에서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한다.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스토리 세 개 정도에 오늘의 날씨와 현재의 기분을 섞어 말하면 쉽고 편하게 자신을 알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스토리에 날씨와 연관 지어 말할 수 있다. 만약 비가 내린다면 "제가 파전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런 비오는 날씨에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들과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파전에 먹거리 한 잔 하고 싶은 ○○○입니다."

너무 떨리는 상황에서 자기소개를 해야 한다면 자신의 스토리에 연관 지어 말할 수도 있다. "제가 올해로 결혼한 지 18년이 지났는데 문득 결혼식 날 예식장에 들어갈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날 정말 많이 떨렸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떨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떨리지만 이 떨림을 설렘으로 바꿔서 여러분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은 ○○○입니다." 이렇듯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현재 상황에 맞게 자기를 소개한다면 청중은 쉽게 집중하게 된다.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저는 대연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입니다"라고 바로 말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얼굴형에 가장 어울리는 머리스타일이 궁금하신 분은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자신 있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처럼 듣는 사람이 유추해서 알아듣게 만들면 보다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필자는 자기소개를 할 때면 언제나 "화려한 연변" '명석한 두뇌' '수려한 외모'의 임찬수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이를 앞에 자신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문구를 넣어 첫마디에 주목을 시키면 청중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기억이 되어 어른이 오래 남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기소개 시간은 간단명료하게 해야 한다는 것. 대략 1분이 넘어가면 자기소개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끝맺음으로 좋은 말은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오늘부터 10분만 투자해서 평생 써 먹을 수 자기소개를 연마해 어떤 자리에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인상적인 내가 되어보자.

임찬수식스피치학원 원장

고 있었다. 두 살, 이름은 풀이, 압늬이란 다. 나는 속으로 풀이에게 감투 하나를 씌워 주었다. '최민식 생가 수호장군'이라는 직책이다. 요즘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 스토리텔링이다 문화컨텐츠다 해서 요란스럽지만 정작 여기는 조용하다. 최민식이 부산 남구에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은 해밍웨이와 미국 키웨스트에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보다 한국인에게 훨씬 더 의미있다. 해밍웨이가 생가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대연동 생가 기념관 되었으면

몰려 온다. 비싼 입장료도 받는다. 해밍웨이보다 정신세계와 유산이 고매(高邁)할 고인의 생가가 그리 요란하게 되는 걸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저 깨끗한 골목과 저 정겨운 생가가 부디 재개발의 광풍에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소망이 있다면 저 집 그대로 작고 소박한 기념관이 되면 좋겠다.

서구 아미동 최민식갤러리보다 고인과 직접적 연고가 더 많은 곳이 남구 대연동이다. 여기에 최민식기념관이 생겨서 참다운 위인(hero)이 남긴 훌륭한 정신유산을 온전히 기리면 좋겠다.



우리지역 일자리 알림판

<2016. 4. 22.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소해하우정	대연동	경리사무원	1명	16.04.21 ~ 04.30	월 180만원	051-625-8880
신우애드	문현동	편집디자인	1명	16.04.20 ~ 06.18	월 160만원	080-707-0076
㈜제니엘휴먼	우암동	물류센터 사무	1명	16.04.20 ~ 06.18	월 170만원	051-911-0303
용호한빛 어린이집	용호동	단체급식조리사	1명	16.04.21 ~ 05.20	월 130만원	051-626-1998
㈜태운메디칼	대연동	납품 및 영업	1명	16.04.21 ~ 05.04	연봉 2,400만원	051-633-0185
㈜세영식품	대연동	총무일반사무	1명	16.04.19 ~ 05.03	연봉 2,000만원	070-7124-4630
㈜유일미디어	문현동	방송장비 설치 수리원	1명	16.04.21 ~ 05.06	월 150만원	051-802-9558
한화승강기(주)	용호동	승강기 설치수리원	2명	16.04.19 ~ 04.30	월 250만원	051-626-1584
새라세요양병원	감만동	영양사	1명	16.04.19 ~ 04.30	연봉 2,000만원	051-628-6005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남구 문화캘린더

공 연 명	공연날짜	공연시간	공연장소 및 문의
로비콘서트 (시립교향악단 협연4중주)	4월27일(수)	17:30~18:00	부산문화관 1층 로비 610-7016
나의 PS 파트너	3월4일(금)~5월1일(일)	화~금 20:00 토 15:00, 17:30, 20:00 일 16:00, 19:00	축제소극장 070-4204-2015
What Else? 더 콘서트, 그 첫번째 이야기	5월1일(일)	18: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010-4817-9545
한국추사서화 예술전국대전	4월30일(토)~5월2일(월)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 종전시실 010-8463-2300
손은혜 귀국 클러넷 리사이틀	5월2일(월)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442-1941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5월3일(화)~5월15일(일)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참조
2016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5월16일(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02-338-3513
제27회 경성형아합주단 정기연주회	5월16일(월)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663-4916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회 정기연주회 및 이견록 제4대 수석지휘자 취임연주 'Universal Busan'	5월19일(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607-3108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9회 정기연주회 '차이코프스키 심포니 5 (TCHAIKOVSKY SYMPHONY V)'	5월20일(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607-3106
어바웃타임-부산	4월2일(토)~5월29일(일)	화~금 20:00 토 16:00, 19:00 일, 공휴일 18:00	행복을 주는 소극장 1800-9727
피아니스트 김현정 초청콘서트	5월29일(일)	1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633-6990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한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필자 <비밀댓글>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산타라 물 따라

산행을 떠나요



<2016. 5.>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형암산악회	5/4(수)	장흥 제암산	010-6778-3192
	악천산악회	5/18(수)	남원 봉화산	010-4655-4370
	대오산악회	5/8(일)	장흥 제암산	010-8557-0479
	백호산악회	5/11(수)	합천 황매산	010-5621-4007
	연포산악회	5/8(일)	보성 일림산	010-3832-5971
용호동	한울림산악회	5/8(일)	화순 백아산	010-9328-6091
	해월산악회	5/15(일)	합천 황매산	010-3580-7558
	신성산악회	5/8(일)	장흥 천관산	010-6520-0167
	여명산악회	4/29~30(금·토)	비금도~완도	010-3554-4392
	21세기산악회	5/15(일)	경주 토함산	010-6555-6940
감만동	금강산악회	5/1(일)	남원 봉화산	010-3865-9051
	부산산오름회	5/1(일)	장흥 제암산	010-7223-2277
	문화산악회	5/22(일)	남해 삼주	010-2077-5076
	용마산악회	5/8(일)	단양 구인사	010-2692-1170
	글로벌산악회	5/14~15(토·일)	거문도백도	010-8287-1192
우암동	우남산악회	5/15(일)	통영 한산도	010-7520-6666
	우일산악회	5/1(일)	단양 금수산	010-3557-2847
	문현산악회	5/1(일)	합천 황매산	010-4035-3432
	문현3동산악회	5/15(일)	보성 초암산	010-5189-6847
	문사산악회	5/8(일)	고성 연화산	010-8466-8662
문현동	문현2산악회	5/8(일)	한산도	010-3178-3065
	원뿌리산악회	5/15(일)	화순 백아산	010-4564-7769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